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05	09. 12	09. 19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예배 전 찬양 - 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2. 생일 - 황희순 집사(1일), 김수정 성도(12일) 정용현 안수집사(음7,13-20일)
3. 입학(9월 2일) - 대한 Schwass(초등), 운유 Flömer(중등)
4. 소리 내어 찬송이나 통성기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410장 다같이
 기 도 Gebet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사 6 : 19 - 24(구p370)..... 강희수 성도
 (Richter 6:19-24)
 설 교 Predigt 여호와 살롬이 임하길.....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412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싸움

Canada Vancouver쪽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Toronto에 있는 수족관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도착해서 보니 물고기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했는지, 먹이를 너무 많이 주었는지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도 물고기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하려 할 때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물고기들을 귀찮게 하는 오징어를 넣어두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물고기를 옮기는 용역회사에서는 그 직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물고기와 함께 오징어도 몇 마리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대륙 횡단을 했는데도 물고기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 두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먹이를 주고 숨 쉴 수 있게 해 주니까 물고기들은 운동부족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경우에는 오징어들이 공격하니까 물고기들은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고기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고, 결국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패잔병인 마귀가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가 됩니다.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깨어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최후 승리의 개가를 부를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이야기 / 최홍준 목사
(부산 호산나 교회 원로)

*** 인내하는 자는 견뎌낼 것이요, 인내의 시련을 견딘 자는 승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Tryon Edwards(1809년 7~1894년 4월) -